

송미경

Song Migyung

(B. 1997/ Gwangju)

h.p : +82 10-4872-7654

e-mail : lpqazw@naver.com

Instargram : @song.mmi.g



안간힘 *Strain*, 2025, Oil on canvas, 116.7×91.0cm



불안 *Anxiety* , 2025, Oil on canvas, 194.0×130.3cm



응집
Tension

2025
Oil on canvas
50.0×65.1cm



오므림 I
Clenching I

2025
Oil on canvas
18.0×13.0cm



오므림 II
Clenching II

2025
Oil on canvas
18.0×13.0cm



여느 때
Usual

2025
Oil on canvas
162.2×130.3cm



작은 빛
Tiny Light

2024
Oil on canvas
31.8×40.9cm



그림자
Shadow

2024
Oil on canvas
116.7×91.0cm



버텨냄

Withstanding

2024

Oil on canvas

130.3×97.0cm (2)



거리
Distance

2024
Oil on canvas
130.3×130.3cm



쉼 I
Rest I

2024
Oil on canvas
97.0×194.0cm





شم II
Rest II

2024
Oil on canvas
162.2×13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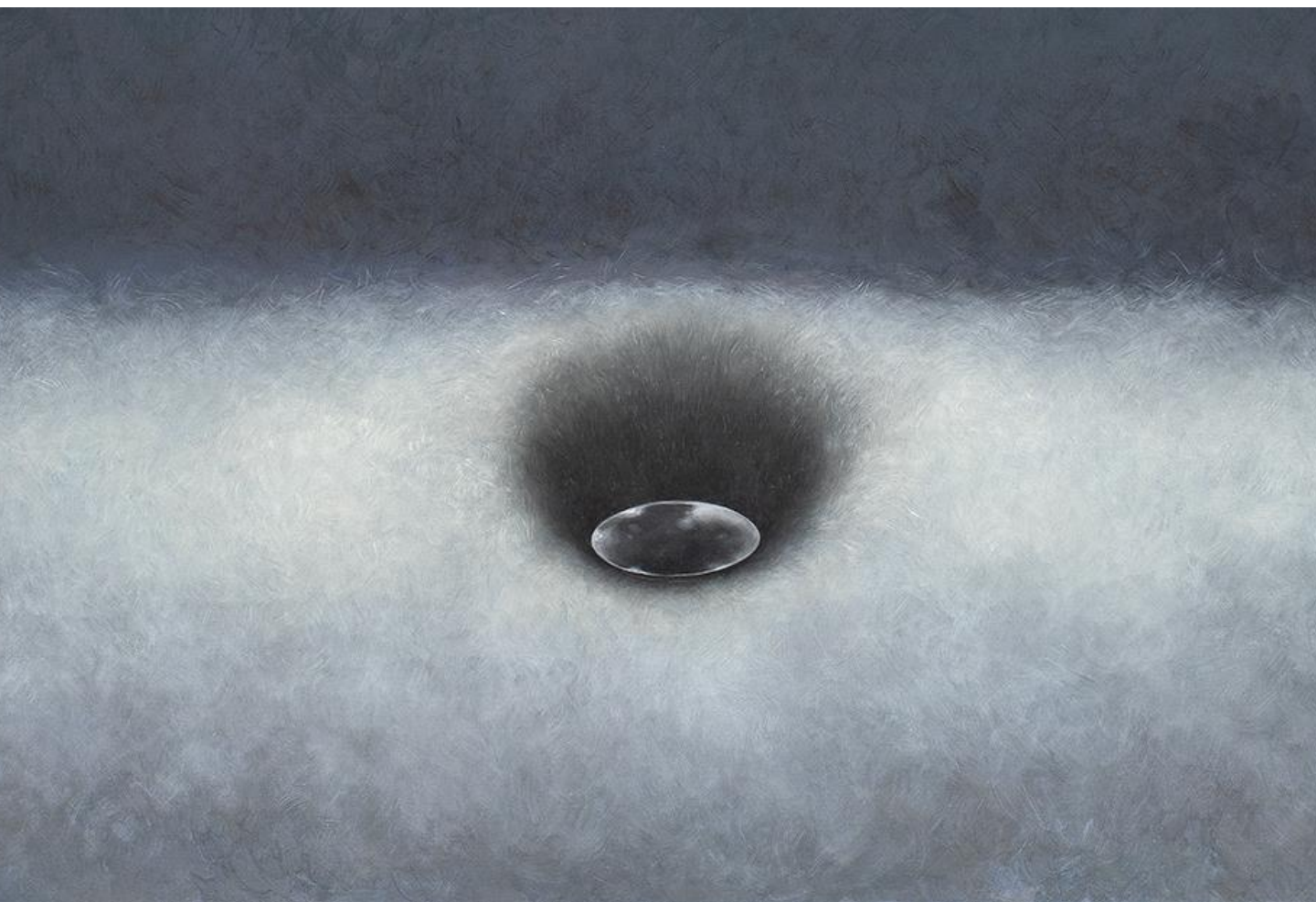
작은 무거움

Weight of the small

2024

Oil on canvas

130.3×19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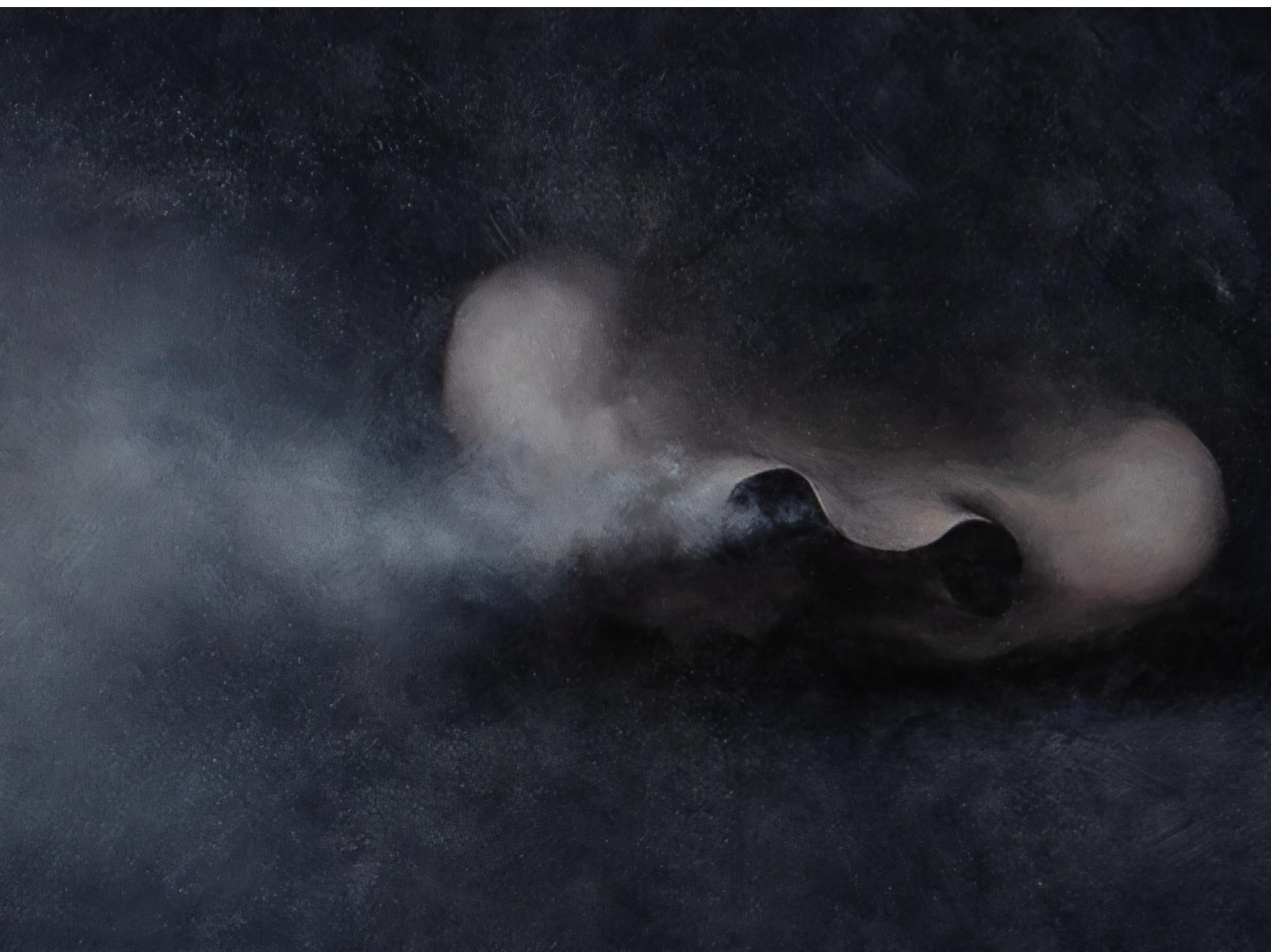
숨

Breath

2024

Oil on canvas

181.8×227.3cm





파도 I
Waves I

2024
Oil on canvas
91.0×91.0cm



파도 II
Waves II

2024
Oil on canvas
91.0×91.0cm





깜깜 *Kamkam*, 2024, Oil on fabric, 280.0×200.0cm





호기심
Enigma

2024
Oil on canvas
91.0×116.7cm



살아있음
Being alive

2024
Oil on canvas
194.0×97.0cm



일상 I
Everyday I

2021
Oil on canvas
90.9×72.7cm



일상 II
Everyday II

2021
Oil on canvas
60.6 × 72.7cm



담소
Talk

2021
Oil on canvas
50.0 × 72.7cm



증명
Validation

2021
Oil on canvas
45.5 × 53.0cm



편안함
Comf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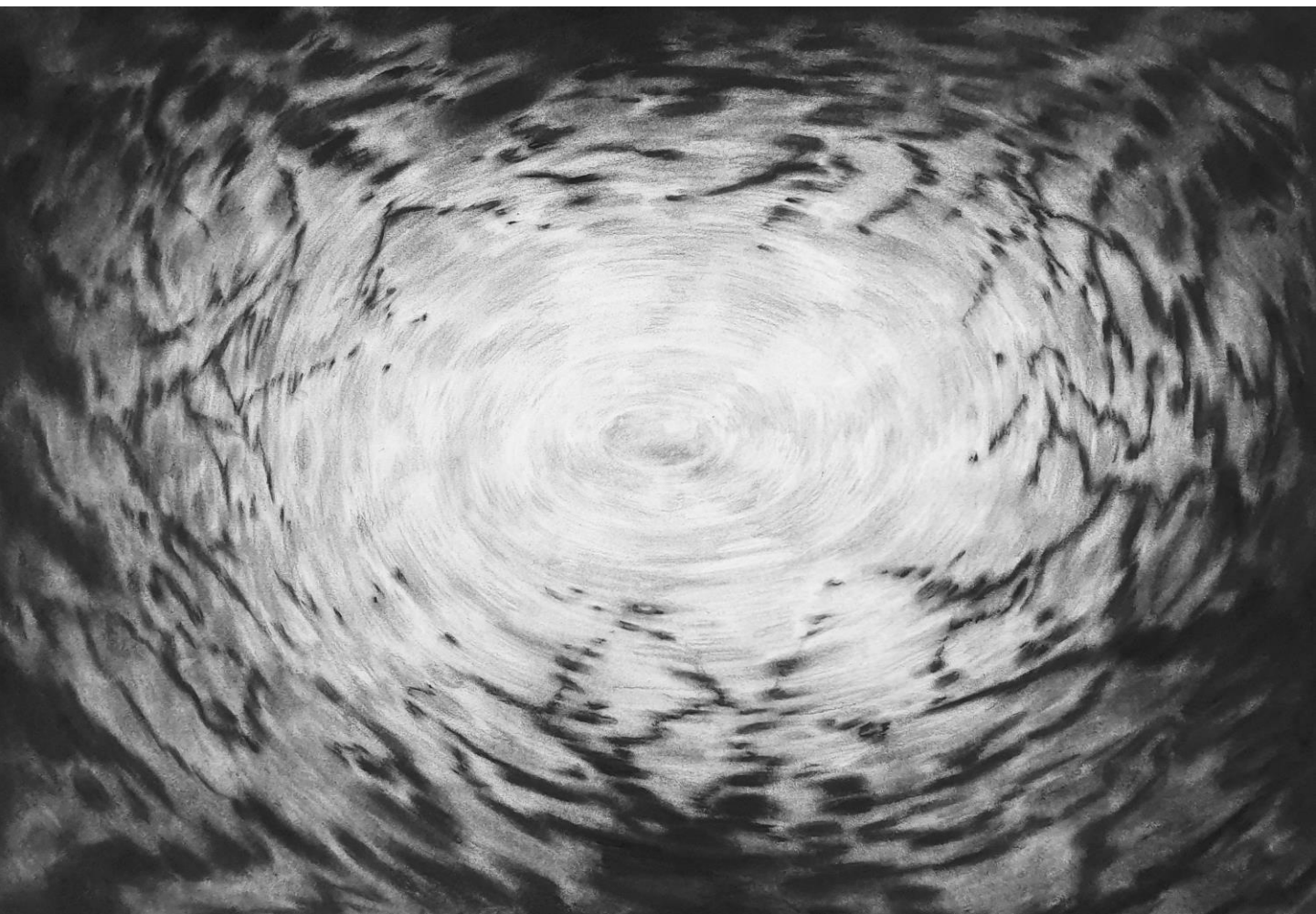
2020
Oil on canvas
100.0 × 80.3cm



2024 [In the Heart Filled with Void] Solo Exhibition View

2024 개인전[가득 빈 마음에] 전경





경계 I
Boundary I

2021
Mixed media on paper
54.5 × 78.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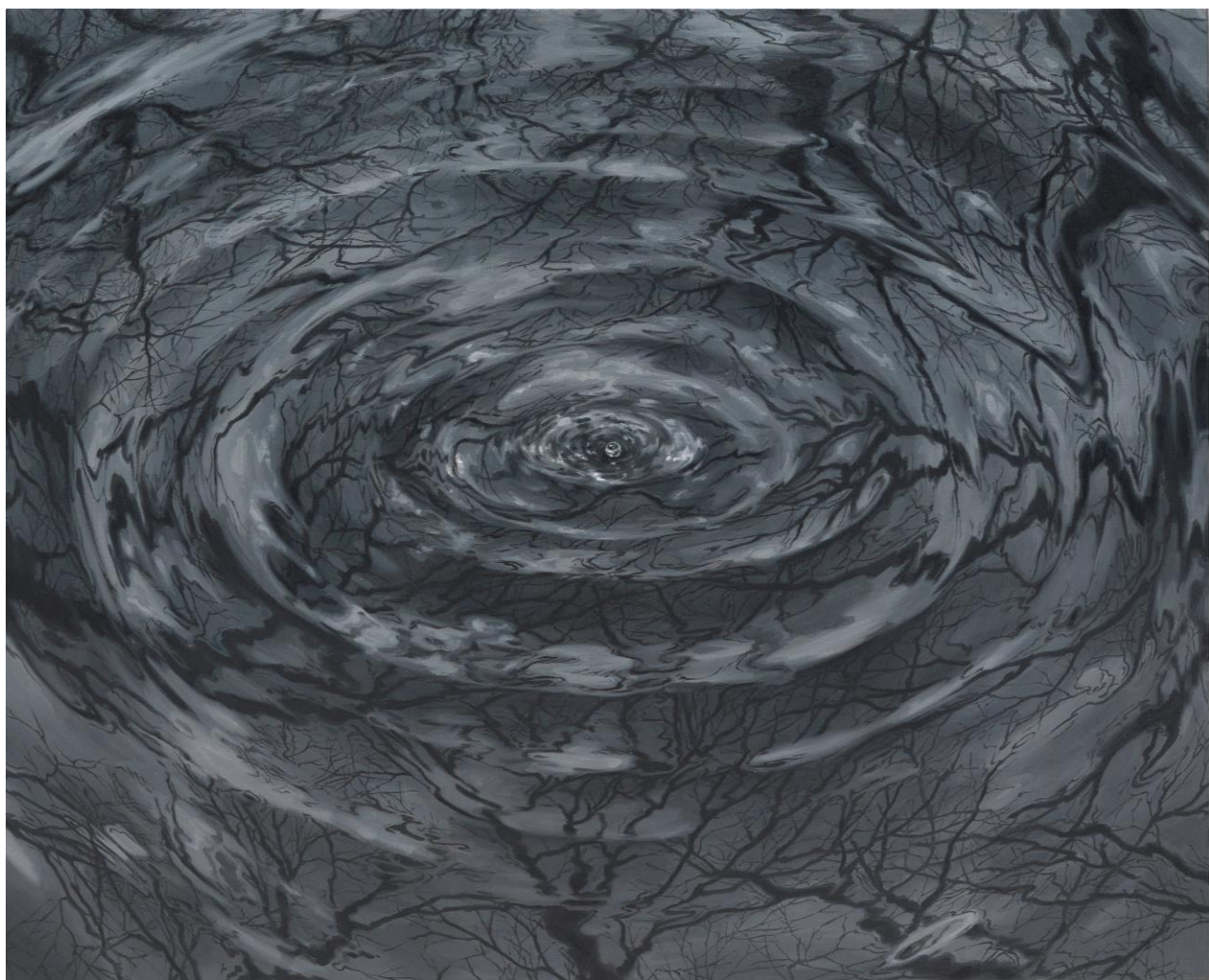
경계 II

Boundary II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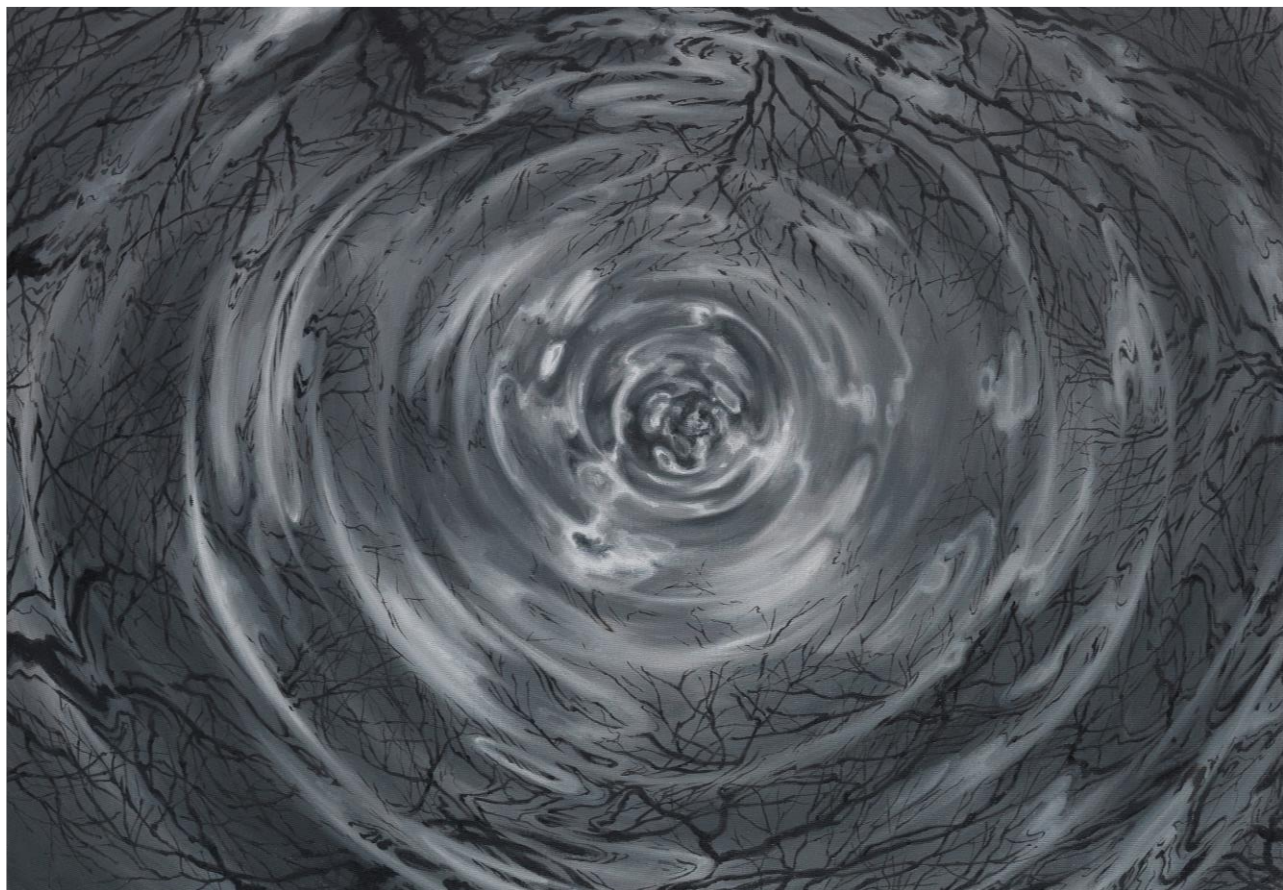
Mixed media on paper

78.8×5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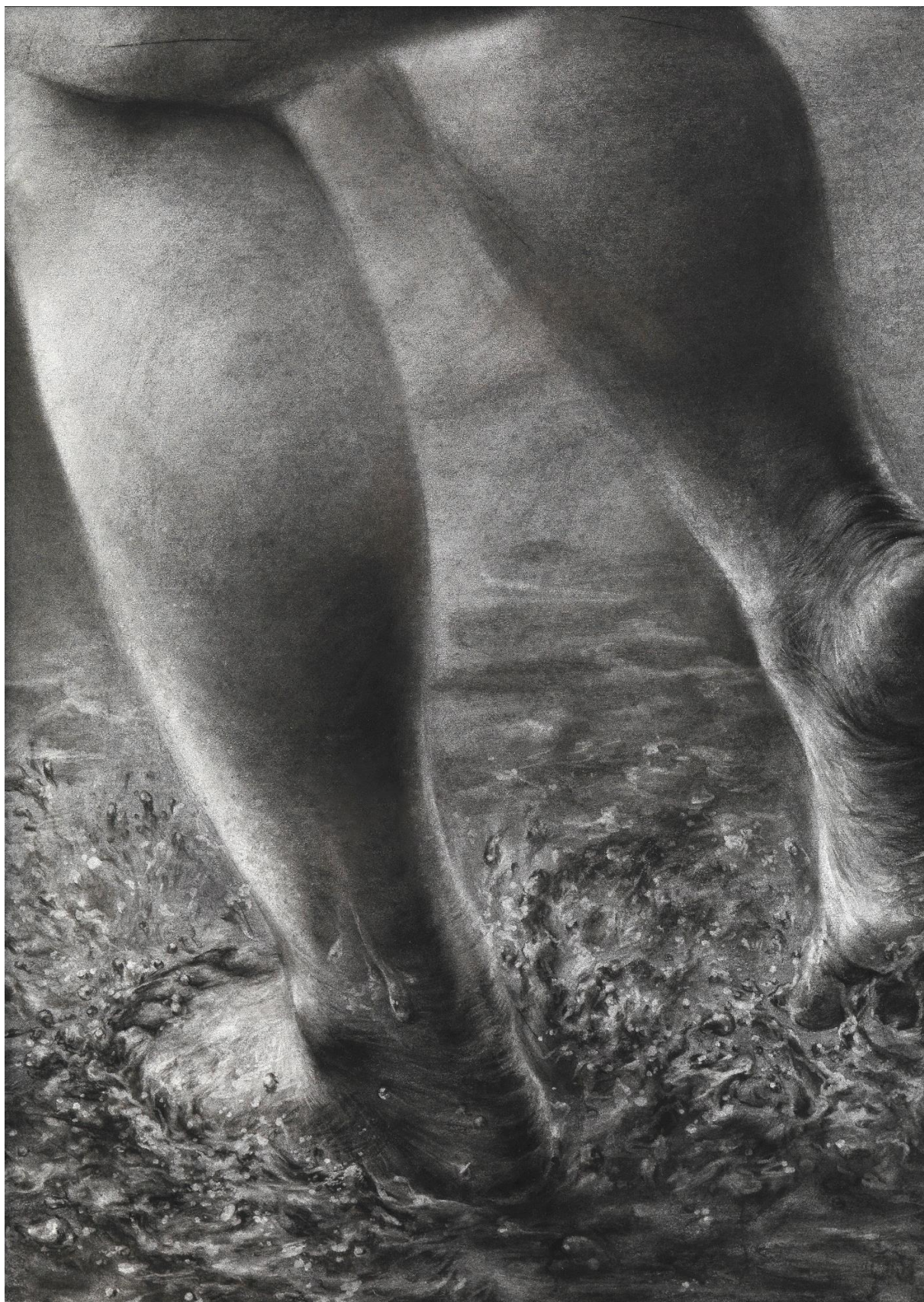
숨방울
Breath drop

2020
Oil on canvas
72.7 × 90.9cm



경계
Boundary

2020
Oil on canvas
50.0×72.7cm



어떤 방향 I
A chosen path I

2020
Mixed media on paper
53.5 × 38.9cm

어떤 방향 II

A chosen path II

2020

Mixed media on paper

65.4 × 48.0cm





탐험Ⅲ
Voyage III

2020
Oil on canvas
145.5×97.0cm



탐험 II
Voyage II

2020
Oil on canvas
97.0×13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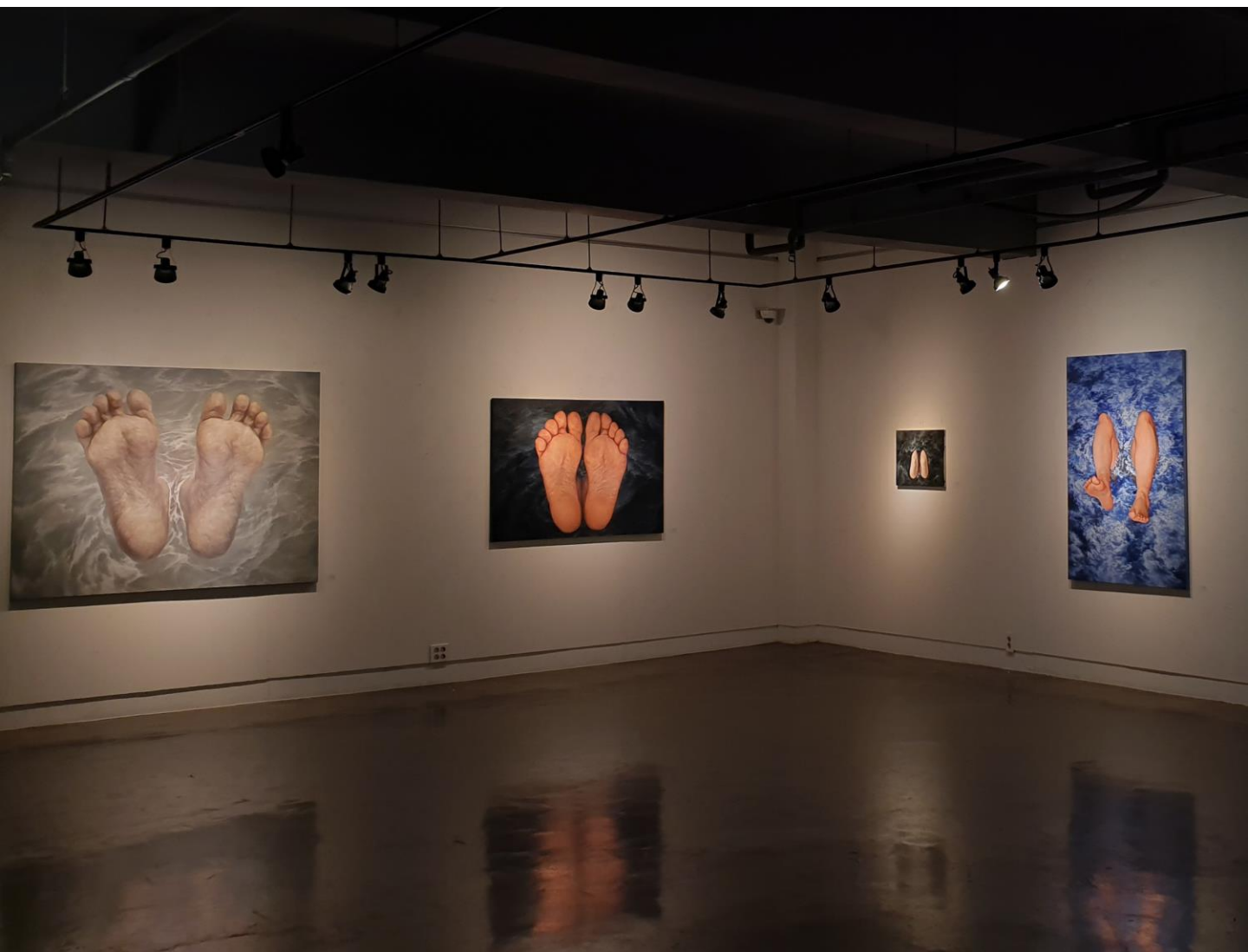
탐험 I
Voyage I

2020
Oil on canvas
130.3×162.2cm



반신
Hemiform

2019
Oil on canvas
45.5×53.0cm



2020 [Rather go] Solo Exhibition View

2020 개인전 [Rather go]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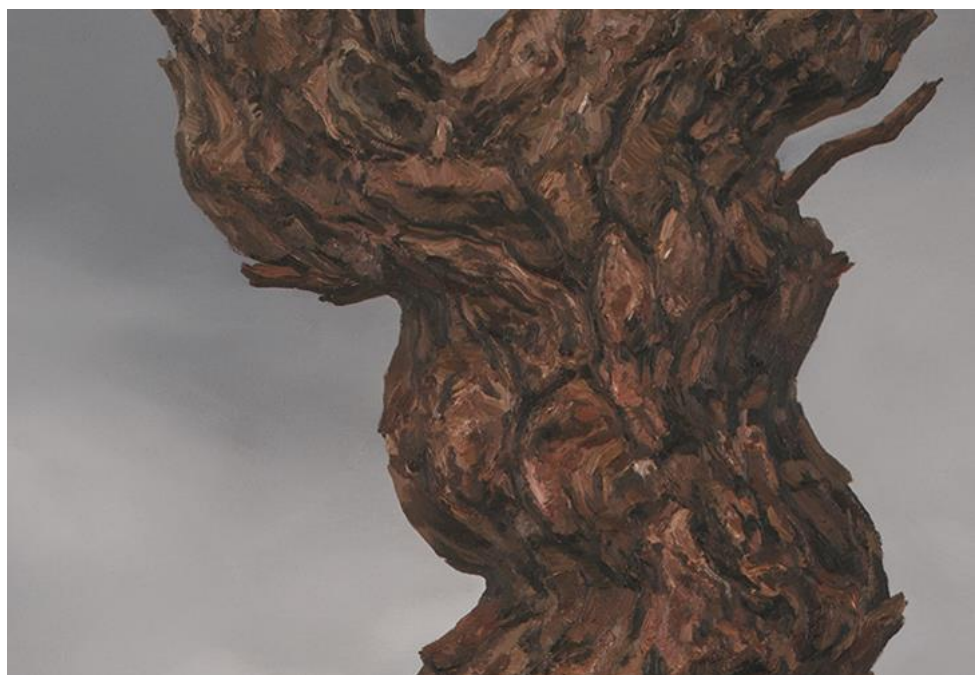
자유
Aut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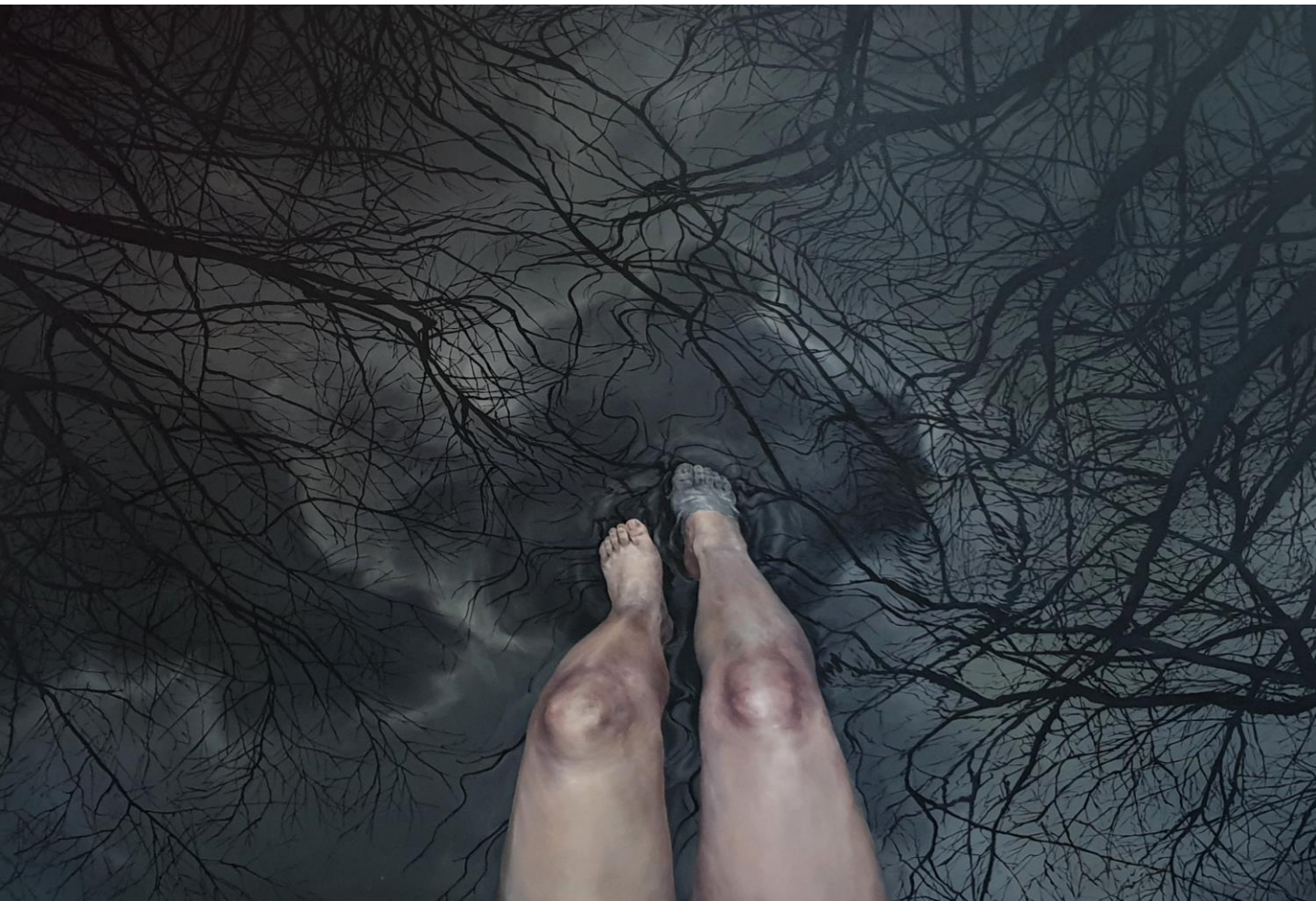
2018
Oil on canvas
130.3×193.9cm



자신
The self

2018
Oil on canvas
356.0×130.3cm





호기심
Enigma

2016
Oil on canvas
130.3×162.2cm

작업노트

착각할 때가 있다. 눈앞의 일들이 명쾌하고 정확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곧 깨어져 나는 초라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은 사실 모두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착각한 채로 움직인다. 과거의 판단과 행동들은 결국 나를 부끄러움으로 이끌고, 미래를 향한 의심을 남긴다.

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착각과 자각의 과정 속에서, 인간과 스스로의 복잡성을 탐구한다. 부정적 감정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모순적 양상에 주목한다. 살아감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남기지만, 이를 온전히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겹치고 얹히고 부딪혀 설명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 중 자기부정은 오랜 시간 나를 붙잡고 있다. 개인에게 느껴지는 감정의 농도는 각자 상이하고 비교할 수 없음에도, 이의 정합을 따지곤 한다. 끊임없는 정보, 검열과 과시가 반복되는 사회 속에서 외부의 기준은 스며들고, 마음은 스스로를 저울질한다. 감정적 상태의 구실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은 외면받기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고여있기도 한다.

나의 작업은 이 내면을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일만큼의 무게이든 어떤 사연이든 그 감정을 돌아보고 지극히 느끼기 위한 것이다. 삶 속 녹아있던 아픔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와 행동의 흔적을 드러내고 받아들인다.

신체는 이 모든 감정의 매개로 기능한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낮선 화면은 불안, 상실, 무력감, 고립감과 같은 감정 상태를 반영한다. 분리된 머리는 무언가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했던 자해적 행위이다. 자신을 위해 숨겨둔 진짜 ‘나’이다. 이 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심정을 작품에 담는다. 작품은 나에게서 시작하지만 이 고백이 작은 동감으로,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실된 하나의 이야기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Artist Statement

There are moments when the world before me appears precise and unquestionable. Yet that clarity never lasts. It fractures, and I am left feeling worn and insignificant. The world I believed I understood reveals itself to exist differently for everyone. Even with this awareness, I continue to move forward under the same illusion. My past judgments return quietly as shame, leaving behind a lingering doubt about the future.

Within this repeated cycle of illusion and awareness, I explore the complexity of human nature and of myself. I focus on negative emotions and the contradictory states they expose. Living inevitably generates a multitude of feelings, yet it is rarely possible to fully process them. Emotions overlap, intertwine, and collide, forming conditions that resist clear explanation.

Among them, self-denial has held me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intensity of emotion is deeply personal and incomparable, we continue to measure and justify it. In a society saturated with endless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display, external standards quietly permeate the mind, prompting it to weigh and question itself. We search for reasons to validate our emotional states. In this process, some feelings are dismissed, while others remain unresolved, accumulating quietly within.

My work is an attempt to acknowledge this interiority as it is. Regardless of its weight or origin, I seek to return to these emotions and confront them with sustained attention. The pain embedded in daily life, along with the bodily changes and behavioral traces it produces, is revealed and accepted in my paintings.

The body functions as a mediator of these emotional states. The unfamiliar scenes I construct—rarely encountered in reality—reflect conditions of anxiety, loss, helplessness, and isolation. A severed head represents a self-directed act of protection, an attempt to endure what could not be borne. It also signifies the hidden “true self” concealed for survival. Through these transformations, I translate layered emotional states into visual form. While my work begins from personal experience, I hope this confession may extend into a quiet resonance, and ultimately remain as a sincere narrative for those living in this era.

약력

1997 광주 출생

2015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9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사 졸업

개인전

2024 [가득 빈 마음에] 아크갤러리, 광주

2020 [Rather go] 주안미술관, 광주

단체전

2026 [존재의 메기; 멈추지 않게 하는 힘] 예술공간 집, 광주

2025 [현재적 순간들 - 11개의 시선] 호랑가시나무, 광주

[낮선 사람의 안내서] 호랑가시나무, 광주

[봉기로부터] 지구발전오라, 광주

[2025 넷지 프로젝트] 예술공간 집, 광주

[월출산 화(畵)씨 뿌리다6- '보이는 것과 볼 수 있는 것'] 월출산 갤러리, 영암

[광주시립미술관 신소장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도깨비불] SPACE DDF, 광주

2022 [금수예술장-계림C] 금수장호텔, 광주

2021 [영흥(Young興)식당 리턴즈-밥은먹고 다니자, 우리] 예술공간 집, 광주

[기분없이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한평갤러리, 광주

[없는 일을 만들어-서]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 광주

2020 [성장하는 예술] 온라인 전시 및 온라인 오픈스튜디오

[전시보고(報告)-13th 광주비엔날레] 뽕뽕 브릿지, 광주

[증거] 주안미술관, 광주

[올나잇 아트 캠핑현장전] 광주공원, 광주

[가치-잇게] 예술공간 집, 광주

[뽕.뽕뽕] 금호갤러리, 광주

2019 [태동-2019展] 전남대 스페이스A/미노갤러리, 광주

[LEEWAY] 전남대 스페이스A, 광주

2018 서양화전공 학위청구전 [빛다르다] 금호갤러리, 광주

[REFRESH] 장진우식당, 광주

[일기장] 전남대 스페이스A, 광주

레지던시

2025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2020 광주 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수상

2020 제 30회 배동신 어등미술제 특선

b. 1997, Gwangju, Korea

2019 B.A. in Fine Arts (Western Paint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Solo Exhibition

2024 *In the Heart Filled with Void*

Ark Gallery, Gwangju, Korea

2020 *Rather go*

Juan Museum of Art, Gwangju, Korea

Recent Group Exhibition

2026

The Catfish Within Existence; A Relentless Driving Force, Artspace House, Gwangju, Korea

2025

Present Moments – 11 Perspectives, Horanggasy, Gwangju, Korea

Guide for a Stranger, Horanggasy, Gwangju, Korea

From the Uprising, Earth Development Aura, Gwangju, Korea

2025 Nudge Project, Artspace House, Gwangju, Korea

Wolchulsan: Sowing the Seeds of Painting 6– “What Is Seen and What Can Be Seen”, Wolchulsan

Gallery, Yeongam, Korea

New Acquisitions,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Will-o’-the-Wisp, SPACE DDF, Gwangju, Korea

2022

Geumsoo Art Market, Geumsoojang Hotel, Gwangju, Korea

2021

YoungHeung restaurant Returns, Artspace House, Gwangju, Korea

I can’ t start without feeling, One Pyeong Gallery, Gwangju, Korea

Creating What Does Not Exist, 5.18 Memorial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20

Exhibition Report, PpongPpongBridge, Gwangju, Korea

Evidence, Juan Museum of Art, Gwangju, Korea

Young Artist Story, YAS season 2, Artspace House, Gwangju, Korea

Residency

2025 Horanggasy Creative Studio, Gwangju, Korea

2020 GMA Young Artist Support Center, Gwangju, Korea

Awards

2020 Special Selection, 30th Baedongshin Eodeung Art Prize, Gwangju Gwangsan-gu, Korea

비평글

- 2024.09.12

찾아오는 우울들blues

: 송미경 개인전 <가득 빈 마음에> 전시서문

이하영 (독립큐레이터/시각예술가)

어떤 고통은 이름도 얻기 전에 지워진다. 가라앉는, 짓누르는, 떨어져 나간, 빨려 들어가는, 떠다니는 ‘듯한’ 느낌은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손쉽게 정리된다. 회화 작업을 통해 감정에 관한 탐구를 지속해 온 송미경 작가는 우울증이라는 의학적 진단으로 뭉뚱그려진 감정들을 한 겹 한 겹 섬세히 떼어낸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름 모를 감정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불러낸다.

OECD 자살률 1위. 그중에서도 2030 여성 자살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나라.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 불릴 정도로 흔해진 곳. 금쪽이들을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국민 멘토가 되어 버린 사회에서 작가는 질병이 되기 전의 우울을 상상한다.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 온 감정을 우리 앞에 펼쳐 놓는다. “작은 돌이 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어딘가 한쪽이 떨어져 나간” “밑으로 가라앉는” “떠내려가는” “말려들어 가는” “우그러지는” “뒤틀리는 듯한” 감정들. 이름이 없어 정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몸을 빌려 말해야 했던 것들이다. 작가는 ‘우울’ 하면 으레 떠오르는 이미지에 기대거나 일반적인 관념을 묘사하는 대신 몸을 관통하거나 훑고 간, 여전히 들러붙어 있는 구체적인 감각을 집어 올린다.

작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캔버스가 푸른색으로 덮인다. 그 위로 색을 쌓아 올린다. 몸으로 맞이하고 떠나보낸 감정들을 재료 삼아 하나의 공간을 완성한다. 특정 감정에 대한 설명이 아닌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를 담는다. 감정으로 가득 찬 빈 공간, 마음의 자리를 만든다. 관객은 그 속에 머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감각한다.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후처럼, 형태 없이도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음악처럼 확실한 존재감을 가진 감정들이다. 작가의 작품 안에서 우울은 더 이상 치료의 대상도, 극복하거나 치유해야 할 문젯거리도 아니다.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 몸 한구석에 자리를 차지하다 떠나는 손님이 된다.

때문에 작가의 작업은 보는 이가 작품 속에서 특정 감정을 발견해 의미를 찾아가도록 선불리 이끌지 않는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감정들이 나에게 찾아온 듯한 인상을 준다. 작품 앞에서 우울증으로 불리기 전의 고통을 마주한다.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되지 않아도 됐을, 앓아야 했을 감정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는 어찌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을 분노였거나,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피로와 무기력으로 내려앉아 버린 감정들이다. 동시에 때때로 영감의 원천이 되거나, 그래서 차마 떨쳐내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며 이따금 꺼내 돌봐야 했던 것들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설명하고 나누고자, 사소하지 않은 일로 만들고자 수용한 ‘우울증’이라는 진단명과, 이름을 얻는 대신 포기해야 했던 감정들이 다시 발견되어 우리 앞에 찾아온다. 이를 치료하거나 외면할 필요도, 관리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작품은 다가오는 감정들을 그저 맞이하며 된다고 말한다.

작가가 정교히 구축한 감정의 공간에 머물다 보면 화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단순한 어둠만이 아님을 알게 된다. 멍이 번지듯 화면 밖으로 미세하게 새어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은 ‘파랑(blue)’이 가진 의미와 맥락을 떠올리게 한다. 가장 위엄 있고 신성시 다뤄지던 색에서 노동자의 색이 되었던 블루. 치유와 신뢰를 대표하는 색인 동시에 우울과 슬픔의 상징이기도 한 색. 하나의 색 안에 이토록 많은 의미가 담긴다. 작가의 작업은 파랑이 가진 길고 넓은 스펙트럼처럼 ‘우울증’으로 정의된 하나의 우울(blue), 외부로부터 주어진 감정이 아닌 저마다의 우울(blues)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노래 제목을 전시 제목으로 택한 작가의 마음을 헤아린다.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내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일이 더 어려울 때가 있다. ‘히스테리’라는 비난과 까칠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 그렇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비정상일까 걱정하고 해결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아닌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헤아릴 수 있는, 비슷한 고통을 가진 이들과 공명할 수 있는 마음의 신호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한 이유다. 감정의 원형을 담고 있는 작품이 병명이 아닌 각자의 우울(blue)이 모여 울리는 블루스(blues), 서로를 찾아가는 음악이 되길 바란다. 작품 앞에서 작가노트 속 그의 말을 곱씹는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실을 상기한다. ‘정상적’인 감정이란 없음을, 나의 감정을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감정들은 모두 헛된 것이 아님을.”

삶과 죽음 그 사이

김효영 (공간 힘 큐레이터)

인간에게 죽음이란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동시에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드러내기에 죽음은 철학적인 사유 내에서 끝없이 논의되어 왔다. 송미경은 자신의 삶 안에서 해명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그 문제들은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여전히 금기시되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관한 것들이다. 가령 죽음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비윤리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금기시되는 경향이 많다. 존엄사와 같은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송미경은 죽음을 깊게 사유할 수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일에 몰두하곤 한다.

인식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명료한 해답이나 그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삶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작가는 삶보다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천착한다. 현실의 각종 미디어에서 전파되는 콘텐츠만 보더라도 죽음은 삶 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여겨지지 않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과잉된 생활양식들을 전파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에 집중한다.

송미경은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철학적인 문제를 다소 큰 범주 안에서 보여준다. 그것들은 대부분 나무나 하늘, 바다와 같은 자연적인 소재들과 신체의 대비들을 이용해서 드러난다. 끝과 끝을 알 수 없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들이 엉켜있는 형상들이 토양에 뿌리는 내리고 있지 않고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모습이거나 (<자신>(2018)),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바다의 수면과 거리를 두고 자리한 나무 사이에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 놓여져 있다거나(<자유>(2018)), 어두운 밤의 하늘인지 그 하늘이 투영된 수면인지 알 수 없는 풍경 속에 다리의 일부나 발바닥이 드러나는 방식들이다(<호기심>(2016), <반신>(2019), <탐험>(2020)). 이러한 작업들은 그 깊이나 끝을 알 수 없는 소재들을 화면에 구성함으로써 삶과 죽음은 연동되어 있지만 그 경계도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재현될 수 없는 인식 너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어쩌면 예술 안에서도 늘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라는 주제를 작업으로써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관점이나 표현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송미경의 작업 안에서도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다소 모호하고 큰 범주의 이야기가 일차원적인 소재로 화면에 옮겨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나 흐름 안에서 죽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논의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나 던지고자 하는 질문들은 어떤 것인지,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뒤따른다면 작업의 층위는 훨씬 두터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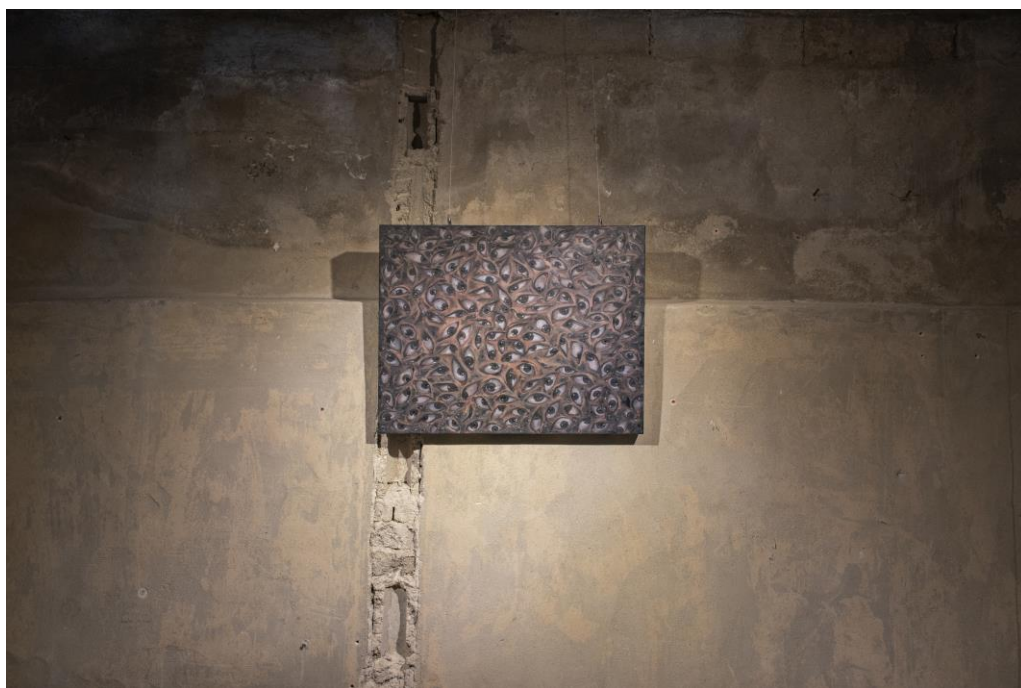
작품 <숨어있기>의 비평글 - 전시 [13th 비엔날레 전시보고(報告)]에서

강동아

일상 속에서 접촉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현시대조차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누군가와 접촉을 하며 각자의 삶 속 빈 공간을 확장시킨다. 즉 성장이라는 명목아래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자의 연대를 유지하기도 하며 삶의 가치를 되살린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볼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첫 만남, 간절하게 바라던 무언가, 어렸을 때는 위험한 걸 두려워하라고 배우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이를 극복하라고 한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행복을 방해하는 것일까? 송미경 작가는 두려움을 무조건 이겨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에게 넌지시 제시한다.

내면에서 끝없는 상상력을 가동하여 의심과 망상이 연결되어 생성되는 두려움을 작가는 캔버스에 담는다. <숨어있기>의 첫인상은 어떠한가. 패턴처럼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눈동자가 관람객을 바라보고 있다. 셀 수 없는 시선들이 각자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자연스럽게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든다. 또는 마치 발가벗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은 두려움과 직면했을 때 감응한다. 마음 속 깊이 장전한 두려움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작가는 방어기제를 만든다. 불투명하고 얇은 천을 가림막 삼아 두려움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응어리를 눈이라는 소재로,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내면을 숨기기 위해 얇은 천으로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매체를 시각화한다. 두려움은 실체는 없지만 위력을 가진 존재라고 해도 무방하다.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깊은 곳에 내재된 불안을 부추기며 시작되는 두려움을 작가는 다른 각도로 바라본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투영한다. 즉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견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두려움을 인정하며 진정한 변화를 향해 개개인의 방식으로 현재보다 더욱 성장하며 자신을 지키게 된다. 즉 작가는 나를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송미경 작가는 이전에 모두가 사유하는 과정인 죽음과 관련하여 꾸준한 작업을 이어나갔다. 죽음 시리지는 담담하면서도 탐구하는 작업세계가 돋보인다. 작가는 어두우면서도 채도가 낮은 톤의 색감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작업방식을 구축한다. 이러한 특유한 색감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극대화한다.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 보다 작가만의 색과 표현력으로 관람객은 더욱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느낀다. 작가는 본 작품을 통해 미묘한 감정의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일원적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시대 이미지 속에서 어떠한 한 가지를 오롯이 느끼는 것은 슬프게도 쉽지 않다. 하지만 공간에 들어선 순간 관람객은 두려움의 이면으로 차분하게 진입한다. 작품 속 내러티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을 재해석해줌으로써 내면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죽음에서 시작해 두려움으로, 이제는 그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송미경 작가의 도전을 기대해본다.



숨어있기_2020_Oil on canvas, Fabric_가변크기